

Paju Bookcity &

Bookcity Culture Foundation

순서

I. 출판도시 개요

- i. 출판도시를 말하다
- ii. 출판도시 연표
- iii. 해외 언론에 비친 출판도시

II. 키워드로 본 출판도시

- i. 책
- ii. 문화
- iii. 미래

III. 출판도시문화재단

- i.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역할
- ii. 주요 사업
- iii.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안내

I. 출판도시 개요

i. 출판도시를 말하다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 면적 : 156만1천㎡(47만2천1백평)
 - 1단계 - 87만4천㎡(26만4천4백평)
 - 2단계 - 68만7천㎡(20만7천7백평)
- 소요금액 : 약 1조원
- 개발기간 : 1단계 - 1997 ~ 2007년
 - 2단계 - 2007 ~ 2016년
- 주요업종 : 1단계 : 출판, 인쇄, 출판유통
 - 2단계 :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 전시, 공연

세계적인 책의 도시

파주출판도시의 정식 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로서,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산업단지입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나 프랑스의 리옹과 같이 자연스럽게 출판활동이 집적된 도시는 찾아볼 수 있지만, 출판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인 협동화사업을 통해 국가로부터 전략산업기지로 지정받아 계획적으로 건설된 사례로는 파주출판도시가 세계 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출판 도시는 현재 총면적 156만㎡의 부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입니다. 2007년 봄, 출판도시의 문화 중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에 ‘게스트하우스 지지향(紙之鄉)’을 개관함으로써 1단계 출판도시가 완공되었으며, 영상산업을 포함한 2단계 출판도시 사업도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의 클러스터

이 도시에는 현재 국내 유수의 출판사, 인쇄사, 제본사, 저작권중개사, 출판유통센터, 디자인 회사 등 3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양질의 출판을 위한 활발한 협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책을 기획, 편집하여 인접한 제작사를 통해

제품을 완성하면, 이것이 곧바로 출판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전국의 독자들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윈스톱 체제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1천여 개가 넘는 출판·인쇄·영상·방송 및 통신업체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더욱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물관도시를 꿈꾸다

출판도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시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도시의 문화적인 환경과 함께 책의 진정한 가치를 체득하고, 이를 통해 출판산업의 기반을 확장하는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를 지향합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도시 곳곳에 북카페, 갤러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대인쇄기술을 복원·계승하는 출판도시활판공방과 디자인 대학교인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그리고 젊은 영화인을 후원·육성하는 명필름문화재단까지 출판도시는 미래의 출판과 영상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 현장입니다.

도시 전체가 건축전시장

출판도시는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건축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커다란 건축전시장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담는 공간인 건축은 건강한 삶을 이끕니다. 이에 출판도시의 건축들은 균형을 잃지 않는 공동성의 추구하고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비움의 철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생태환경은 물론 주변 건물과의 조화까지 고려해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양보도 감내했던 것이 공동성의 추구요, 쓸데없는 담장을 없애고 도시 곳곳에 공간의 여유를 만든 것이 바로 비움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출판도시의 시도는 국내 건축 전공자들은 물론,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 통일의 꿈을 품은 땅

파주의 가장 서쪽 한강변에 위치한 출판도시는 한민족의 염원을 담은 자유로에 면해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개성과 평양까지 내달리기를 염원하는 것처럼, 자유로를 따라 4,500m에 걸쳐 한강과 평행을 이루며 형성된 출판도시 역시 한반도 서부 문화벨트의 중심기지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ii. 연표로 보는 출판도시(1988-2016)

1988년 정기적으로 북한산을 오르며 출판의 미래를 고민하던 출판인들이 ‘출판도시산업단지’를 건설하자는 데 뜻을 모음.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부에서 세부계획 확정 발표 (대통령 지시사항 코드번호 06-26-16)



1997년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1998년 문화관광부를 관리권자로 위탁(산업자원부)

1998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 진행



1999년 출판도시 조성 전진기지이자 출판도시 첫 번째 건물인 인포룸(Inforoom) 완공



2000년 인간성 존중의 도시, 생태환경 도시, 도시전체가 박물관 같은 문화도시의 기준을 제시한 ‘건축설계지침’을 따라 건강한 출판·건축문화 정립을 약속하는 ‘위대한 계약서’ 협약을 체결



2001년 도시의 핵심 문화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공식과 더불어 출판도시 건축 본격화. 이로써 13년 동안 출판인들이 불굴의 의지로 추진해 온 출판도시가 드디어 현실화됨.

2003년 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 실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출판도시 문화재단 설립

2003년 책의 도시 탄생을 알리며 제1회 파주 어린이책한마당(현재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개최(매년 5월 진행)



2003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출판도시의 상징물로 정읍에서 김동수(金東洙) 고가(古家) 사랑채를 옮겨옴.



2004년 출판도시의 심장부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완공.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4,000여 평의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출판문화예술 활동 및 학술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2005 주빈관 '과주출판도시' 초청전 개최



2005년 북디자인을 중심으로 책 만들기의 최근 동향과 우수 사례를 살펴보는 제1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개최(매년 가을 진행)

2006년 출판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혁신을 추구하는 제1회 과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개최(매년 가을 진행)



2007년 대규모 복합문화·연수시설 게스트하우스 호텔 지지향(紙之郷) 개관. 1단계 출판도시 완공식 개최



2009년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 착공(LH)

2011년 2단계 산업시설용지 총 112개 사 입주계약 완료

2012년 우리 재단에서 과주출판도시 이름으로 아부다비 문화재정이 후원하는 국제적인 도서상인 'Sheikh Zayed Book Award'의 'Best Technology in the Field of Culture'를 수상함.

2012년 베이징국제도서전 2012 주빈관 '과주출판도시' 특별전 개최



2014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벽면을 활용하여 열린 독서문화 공간인 '지혜의숲'을 개관함.



iii. 해외 언론에 비친 출판도시

출판도시는 세계에서라도 유례를 찾기 힘든 출판산업집적도시입니다. 해외 여러 언론들이 출판도시의 이념과 아름다운 건축물에 주목하고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1) 2004년 6월 월간 新建築(일본)
『PajuSwoffice 坡州ブックシティ』
- 2) 2005년 3월 월간 domus(이탈리아)
『In praise of emptiness—elogio del vuoto』
- 3) 2006년 12월 월간 BLUEPRINT(영국)
『Paju Book City, South Korea』
- 4) 2006년 10월 월간 Wallpaper(영국)
『Where Next_Korea boost』
- 5) 2007년 1월 월간 La Vie(중국)
『Paju Meets Xue Xue』
- 6) 2007년 1월 계간 WEPEOPLE(대만)
『到學學上學 Back to School』
- 7) 2007년 3월 월간 Architectural Design(영국)
『Landscapes of the Second Nature_Emptiness as a Non-Site Space』
- 8) 2007년 3월 월간 ICON(영국)
『Paju Book City is a model village』
- 9) 2008년 10월 월간 BROKORE(일본)
『紙の香りに包まれる休息』



II. 키워드로 본 출판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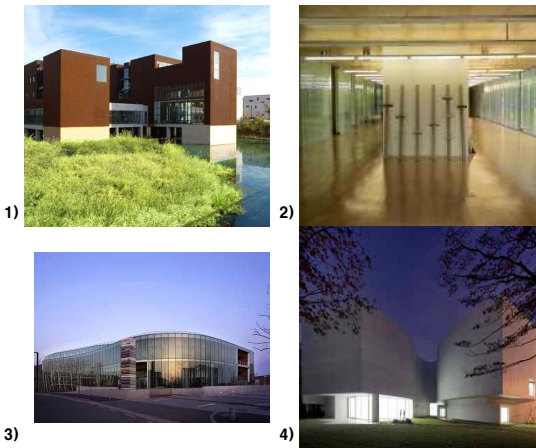
i. 책

출판도시는 현재 국내 유수의 출판사, 인쇄회사, 제본회사, 저작권중개회사, 출판유통센터, 디자인회사 등 3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약 1조 7000억원의 매출과 1만 명 고용 인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ii. 문화

국내외 실력있는 건축가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출판도시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각종 건축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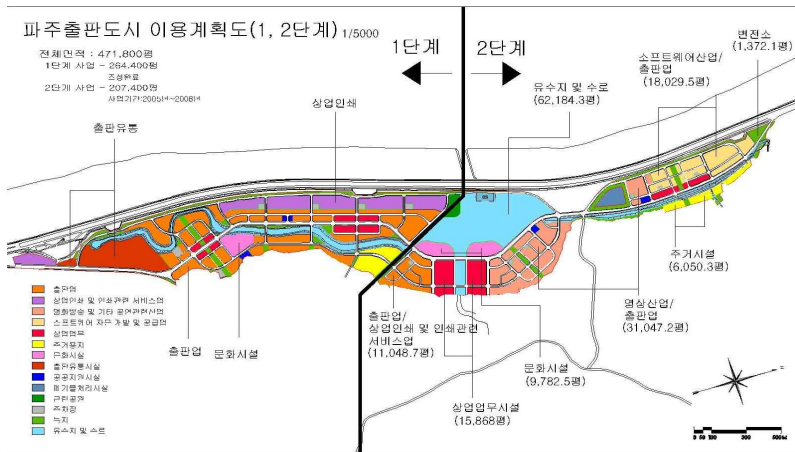
- 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김수근 건축문화상 수상 (2004)
- 2) 들녘, RIBA 건축상 수상 (2006)
- 3) 용진생크빅,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2007)
- 4) 미메시스,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2006)

출판도시는 출판산업을 이끄는 산업단지인 동시에 독자들과 함께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합니다. 북카페, 갤러리, 체험공간 등 문화공간이 밀집한 책방거리에서 여유로운 책산책, 어떠세요. 또한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어린이책잔치와 파주북소리와 같은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상설 인문학 강연, 출판관련 포럼,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iii. 미래

파주출판도시는 1단계 도시건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21세기의 첨단 문화예술 사업 부문인 영상과 미디어 산업을 동시에 집적시키는 2단계 사업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2단계 출판도시에에는 영화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출판과 영화, 활자와 영상의 만남을 통한 효율적인 협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에서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소규모업체들도 자사 사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필지 개발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영상언어와 출판산업의 만남은 21세기형 공존과 통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II. 출판도시문화재단

i.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역할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세계 유일의 책의 도시인 파주출판도시를 자연과 도시, 출판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03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건립, 출판관련 국제회의와 책잔치, 전시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을 저변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사업

-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
- 출판도시 내 복합문화, 연구지원시설의 건립 및 운영
-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보급 사업
-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산업의 국제 교류 협력 사업
- 국내외 도서전, 공연,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iii.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안내



출판도시의 심장부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약 20,000㎡ 규모의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입니다. 2000년 10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병윤 건축가가 설계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건축과 주변 환경의 조화가 돋보이는 건물로, 2004년 제14회 김수근 건축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대규모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동시통역시설이 완비된 다목적홀과 공연, 전시 등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벤트홀, 250석 규모의 대회의실, 최첨단 영상시설을 자랑하는 영상전시홀에서는 국제적인 규모의 심포지엄은 물론 대형 전시와 이벤트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 야외에 조성된 이벤트광장과 아시아광장, 물의 정원 등은 산과 도시를 배경으로 한 멋진 야외 공연장이자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헌책방과 고서점, 도서관과 복합도서관문화공간인 지혜의숲, 북카페 등의 문화공간과 은행,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을 유치하여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꾸는 글과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문화가 함께 있는 곳.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자연과 도시, 책과 문화, 건축과 예술을 잇는 새로운 문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